

脆弱階層 老人의 扶養實態 比較分析

李佳玉·徐美卿·金廷錫

人口老齡化 과정의 성숙과 더불어 노인인구집단도 多樣化·階層化되면서, 後期老人, 女性老人, 農村老人이 脆弱階層 老人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부양의 세 가지 측면에서 脆弱階層 노인과 非脆弱階層 노인의 실태를 對數線形模型을 이용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는, 첫째로 經濟的 扶養의 측면에서 前期老人에 비하여 後期老人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은 높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女子老人(男子老人에 비하여)은 경제적으로 자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郡部老人(市部老人에 비하여)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약한 편이지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身體的 扶養者가 있는 비율은 後期老人이 前期老人에 비하여 높으며, 제공되고 있는 신체적 부양에 대하여는 後期老人이 前期老人에 비하여 滿足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女子老人은 男子老人에 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양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는 情緒的 扶養者가 있는 비율은 前期老人(後期老人에 비하여), 男子老人(女子老人에 비하여), 市部老人(郡部老人에 비하여)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공되고 있는 정서적 부양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女子老人이 男子老人보다 낮는데, 이러한 男女 老人간의 차이는 後期老人인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老人福祉政策을 위해 우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階層을 選別할 필요가 있다.

筆者: 李佳玉-本院 研究委員
徐美卿-本院 責任研究員

金廷錫-University of Michigan, 社會學 博士 學位 課程中

▶ 원고를 검독하여 주신 李成基 責任研究員과 金東奎 博士께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우리나라는 低出生率 및 平均壽命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老齡化 과정이 점차 성숙되면서, 노인인구의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保健·醫療上 그리고 家族關係上 지위도 다양해져 그들 내에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계층 중에서 정책적·학문적으로 최우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계층은 後期老人, 女性老人 그리고 農村老人으로 대변되는 脆弱階層 노인들인데, 이 脆弱階層 노인들은 다른 노인집단에 비하여 제반 생활여건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後期老人들은 前期老人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그만큼 扶養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여자노인들은 남자노인들에 비하여 有配偶率이 낮으며, 일반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農村老人들의 경우, 젊은 층의 도시로의 집중으로 인해, 힘든 농사일을 스스로 전담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며, 保健·醫療 惠澤도 도시노인에 비하여 열악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脆弱階層 노인들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정책적 방향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하에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情緒的 扶養의 측면에서 脆弱階層 노인과 非脆弱階層 노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II. 資料 및 研究方法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4년 4월 4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60세 이상 노인 2,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老人生活 實態調査’의 결과를 사용하였다(이가옥

외, 1994 참조). ‘노인생활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노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보건·의료실태, 노인부양실태 등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經濟的, 身體的 그리고 情緒的 扶養實態를 나타내는 몇 가지 變因들과 脆弱階層 노인의 구분 기준이 되는 연령·성·거주지역(이하 지역) 등의 變因을 추출했다.

經濟的 扶養實態는 주 수입원의 형태와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그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身體的 扶養實態는 日常生活 遂行能力(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한 가지라도 제한이 있는 노인들을¹⁾ 대상으로 이들이 신체적 부양을 제공받는지 여부와, 신체적 부양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의 부양만족 여부를 대표변인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情緒的 扶養實態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는 걱정거리나 문제점이 있을 때 의논상대가 있는가의 여부와 의논상대가 있는 경우의 의논상대에 대한 만족여부를 사용했다. 이러한 扶養實態를 나타내는 6가지 변인과 脆弱階層을 구분짓는 세 변인에 대한 설명은 <表 1>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에 걸쳐, 脆弱階層 노인의 부양실태를 분석하고자 했는데, 제1단계는 연령·성·지역 등의 세 변인 각각에 따라 부양실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차원 분할표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χ^2 검정을 통해 그 상관관계의 統計的 有意性을 살펴보았다. 제2단계는 多變因分析의 일환으로 연령·성·지역의 세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변인들이 부양실태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對數線形模型(Log Linear Model)을 사용하여 점검해 보았다. 이러한 통계분석은 PC용 SAS PACKAGE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분석의 제1단계에서는 PROC FREQ를, 제2단계

1)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외출, 화장실 사용 등 6가지의 日常生活 修行動作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행하는 데 약간이라도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함.

<表 1> 分析에 使用된 變因의 定義

변 인	정 의
연령	0=전기 노인 (60~69세) 1=후기 노인 (70세 이상)
성	0=남자 1=여자
지역	0=시부 1=군부
경제적 부양실태 주수입원 형태 ¹⁾	0=자립형 1=의존형
주관적 경제평가	0=어렵다 1=어렵지 않다
신체적 부양실태	
신체 부양자 유무 ²⁾	(일상생활수행에 1가지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 중에서) 0=신체부양자가 전혀 없는 경우 1=신체부양자가 있는 경우
신체부양 만족정도	(신체상의 부양을 받는 노인 중에서) 0=부족하다 1=부족하지 않다
정서적 부양실태	
정서 부양자 유무 ³⁾	(걱정거리나 문제점이 있는 노인 중에서) 0=의논상대가 전혀 없는 경우 1=의논상대가 있는 경우
정서부양 만족정도	(의논상대가 있는 노인 중에서) 0=부족하다 1=부족하지 않다

註: 1) 자립형: 주 수입원이 일·직업, 연금·퇴직금, 부동산·집세·저축증권의 이익 배당인 경우

의존형: 주 수입원이 자녀·친지, 생활보호·노령수당인 경우

2)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외출하기, 화장실 사용 등 6가지 일상생활 수행을 도와 주는 사람으로 가족, 친척, 친구·이웃, 고용인 등 모든 부양자를 포함함.

3) 걱정거리나 문제점을 의논하는 상대로 가족, 친척, 친구·이웃, 고용인 등 모든 의논 상대자를 포함함.

에서는 PROC CATMOD를 사용하였으며, 각 단계에 승수²⁾를 적용하였다.

Ⅲ. 分 析

본 연구에서는 脆弱階層 노인과 非脆弱階層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情緒的 扶養實態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부양실태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因果的 分析보다는, 脆弱階層 노인들의 부양실태가 非脆弱階層 노인들의 부양실태와 어떻게 다른 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記述的(Descriptive)분석에 치중하였다.

1. 二次元 分割表 分析 및 그 結果

<表 2>는 연령·성 및 지역에 따른 부양실태 변인들의 상대적 분포와 그 상관관계를 χ^2 검정해 본 결과이다.

가. 經濟的 扶養實態

주 수입원의 형태를 보면, 전체노인 2,048명 중 自立型的 비율은 48.4%, 依存型的 비율은 51.6%로, 자립형과 의존형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성 그리고 지역별로 의존형 비율을 비교해 보면, 前期老人보다는 後期老人에서, 그리고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서 더 높으나, 시부노인보다는 군부노인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統計的으로 有意한 것으로 밝혀졌다. 主觀的 經濟評價의 경우 전체노인 2,054명 중 20.3%만이 자신들이 경제상태가 어렵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

다고 평가한 비율은 前期老人보다는 後期老人에서 더 높은 반면,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서, 그리고 시부노인보다는 군부노인에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령·성 및 지역별 차이는 統計的으로 有意하다.

나. 身體的 扶養實態

현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 548명 중 53.3%가 身體的 扶養者가 있으며, 46.7%는 신체적 부양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부양자가 있는 비율은 前期老人보다는 後期老人에서, 그리고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서 더 높다. 반면에 시부노인보다는 군부노인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統計的으로는 연령별 차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들 292명 중 84.1%가 그들이 받는 身體的 扶養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5.9%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성·지역별로 살펴보면, 前期老人보다 後期老人에서 더 높으나,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서, 그리고 시부노인보다는 군부노인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지역별 차이는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情緒的 扶養實態

걱정거리나 문제점이 있을 때, 의논상대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한 노인 1,964명 중 76.5%가 의논상대가 있으며, 23.5%는 의논상대가 없다고 응답했다. 의논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前期老人보다는 後期老人에서,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서, 그리고 시부노인보다는 군부노인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 적용된 승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연구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러한 차이들은 모두 統計的으로 有意하다. 또한 의논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1,487명 중 89.8%가 의논상대의 도움에 대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0.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前期老人

보다는 後期老人에서,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서, 그리고 시부노인보다는 군부노인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만 統計的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2> 年齡·性 및 地域에 따른 扶養實態의 分布¹⁾

				(단위: %)					
				주수입원 형태 ²⁾					
		자립형	의존형	계(명)	주관적 경제평가 ³⁾				
					어렵다	어렵지 않다	계(명)		
전체		48.4	51.6	100.00 (2,048)	전체	77.68	20.32	100.00(2,054)	
연령*	전기	61.9	38.1	100.00 (1,250)	연령*	전기	81.00	19.00	100.00(1,251)
	후기	27.3	72.7	100.00 (797)		후기	77.63	22.37	100.00 (802)
성*	남자	67.2	32.8	100.00 (811)	성*	남자	77.51	22.49	100.00 (815)
	여자	36.1	63.9	100.00 (1,236)		여자	81.11	18.89	100.00(1,239)
지역*	시부	42.1	57.9	100.00 (1,166)	지역*	시부	76.71	23.29	100.00(1,168)
	군부	56.8	43.2	100.00 (882)		군부	83.60	16.40	100.00 (885)
				신체적 부양자 ⁴⁾					
		없음	있음	계(명)	신체적 부양 만족정도 ⁵⁾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계(명)		
전체		46.71	53.29	100.00(548)	전체	15.92	84.08	100.00(292)	
연령*	전기	58.31	41.69	100.00(207)	연령*	전기	24.26	75.74	100.00 (86)
	후기	39.69	60.31	100.00(342)		후기	12.46	87.54	100.00(206)
성	남자	47.78	52.22	100.00(164)	성*	남자	7.00	93.00	100.00 (85)
	여자	46.25	53.75	100.00(385)		여자	19.59	80.41	100.00(207)
지역	시부	44.14	55.86	100.00(288)	지역	시부	15.71	84.29	100.00(161)
	군부	49.54	50.46	100.00(261)		군부	16.19	83.81	100.00(131)
				정서적 부양자 ⁶⁾					
		없음	있음	계(명)	정서적 부양 만족정도 ⁷⁾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계(명)		
전체		23.50	76.50	100.00(1,946)	전체	10.22	89.78	100.00 (1,487)	
연령*	전기	20.37	79.63	100.00(1,221)	연령	전기	9.86	90.14	100.00 (972)
	후기	28.77	71.23	100.00 (725)		후기	10.90	89.10	100.00 (516)
성*	남자	19.73	80.27	100.00 (775)	성*	남자	8.27	91.73	100.00 (622)
	여자	25.99	74.01	100.00(1,170)		여자	11.63	88.37	100.00 (865)
지역*	시부	21.59	78.41	100.00(1,113)	지역	시부	9.92	90.08	100.00 (873)
	군부	26.04	73.96	100.00 (832)		군부	10.64	89.36	100.00 (614)

註: 1) 승수부여 관계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무응답 10명 제외함.
 3) 무응답 4명 제외함.
 4)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분포임.
 5) 신체적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분포임.
 6) 대리응답 111명, 무응답 1명 제외함.
 7) 정서적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분포임(무응답 2명 제외함).
 8) *: p<0.05

2. 對數線形模型에 의한 分析과 그 結果

앞의 二次元 分割表 分析에서는 χ^2 검정을 통해 두 변인적인 관계를 독립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分析過程은 두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나 한 쌍의 변인들 외에 다른 변인이 함께 있을 때는 諸 變因들간의 관련성을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변인들과 3차 혹은 그 이상 차수의 交互作用 (Interaction)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령·성·지역 등의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부양변인과 갖게 되는 複合的인 關聯性 및 相互作用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4차원 상황에서 분류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유용한 對數線形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초점은, 연령·성·지역의 세 변인간의 관련성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그 세 변인이 독립적으로 혹은 相互依存的으로 扶養變因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검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基本模型(Basic Model)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본모형(a) = {연령*성*지역} {부양변인}

이 기본모형 (a)는 연령·성·지역간의 3차원 相互

작용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들 중의 하나라도 扶養變因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모형이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모형은 이 기본모형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기본모형과 비교해 얼마나 나아진 것인지, 그리고 그 모형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統計的으로 檢定받게 된다. 이같은 과정은 우도비 검정통계량(G^2)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택되어진 對數線形模型에 의해 연령·성·지역과 扶養變因간의 관계가 설명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택된 代數線形模型으로부터 계산되어진 기대분포값들의 Odds와 Odds Ratio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가. 經濟的 扶養實態

1) 主 收入源 形態

다음에서 설명될 몇개의 對數線形模型을 분석한 결과, 연령·성·지역이 독립적으로 주 수입원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모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모형에 대한 선택과정은 아래와 같다.³⁾ <表 3>은 분석에 이용된 몇 가지의 對數線形模型의 우도비 검정통계량(G^2)과 자유도 및 모형들의 차이에 대한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를 요약한 표이다.

<表 3> '主收入源 形態'에 대한 對數線形模型과 統計檢定

모형	내용	자유도	G^2	모형간의 차이	자유도	G^2
(a)	{연령*성*지역}+{주수입원 형태}	7	489.24*	-	-	-
(b)	모형(a)+{연령*주수입원 형태}	6	248.39*	(b)와 (a)	1	240.85*
(c)	모형(b)+{성*주수입원 형태}	5	59.22*	(c)와 (b)	1	189.17*
(d)	모형(c)+{지역*주수입원 형태}	4	5.63	(d)와 (c)	1	53.59*
(e)	모형(d)+{연령*성*주수입원 형태}	3	4.74	(e)와 (d)	1	0.89
(f)	모형(d)+{연령*지역*주수입원 형태}	3	4.66	(f)와 (d)	1	0.97
(g)	모형(d)+{성*지역*주수입원}	3	2.56	(g)와 (d)	1	3.07

註: *: $p < 0.05$

모형 (a)는 연령·성·지역의 세 변인과 주 수입원 형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으

3) 對數線形模型 선택과정과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주 수입원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상술하고, 이외의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약술했는데, 그 이유는 그 選擇過程과 結果解析이 동일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로, 이 모형은 우도비 검정통계량($G^2=489.24$ 자유도=7)에 근거해, 모형 (a)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모형 (b)는, 모형 (a)를 발전시켜 연령이 주 수입원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항목을 넣은 것으로, 이 항목의 추가는 두 모형간의 비교에서 보여지는 우도비 검정통계량($G^2=240.85$, 자유도=1)의 차이에서 統計적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b) 자체는 우도비 검정통계량($G^2=248.39$, 자유도=6)의 결과, 모형(b)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c)는 모형 (b)에다 性 變因이 주 수입원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 본 것으로, 모형 (c)와 모형 (b)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우도비 검정통계량($G^2=189.17$, 자유도=1)에 의거하여, 새로 추가된 항목이 統計적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자체의 우도비 검정통계량($G^2=59.22$, 자유도=5)에 의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모형 (d)는 모형 (c)를 발전시켜, 지역이 주 수입원과 관련이 있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서, 연령·성·지역이 각각 주 수입원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3가지 2次 交互作用을 내포한 모형이다. 모형 (c)와 비교해 볼 때, 우도비 검정통계량의 차($G^2=53.59$, 자유도=1)로서, 지역과 주 수입원 형태가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항목의 추가가 統計적으로 有意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우도비 검정통계량($G^2=5.63$, 자유도=4)에 의해, 모형 (d)가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모형 (e)는, 모형 (d)에다 연령과 성이 함께 주 수입원 형태와 3차 交互作用을 일으킨다는 항목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 모형은 연령과 성이 주 수입원 형태에 대해 獨立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연령과 성의 두 변인에 따라 주 수입원 형태가 보다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검정하게 해 준다. 모형 (d)와 비교해

볼 때, 우도비 검정통계량($G^2=0.89$, 자유도=1)에 의해 {연령·성·주 수입원 형태}의 3次 交互作用이 統計적으로 有意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모형 (d)와 모형 (e)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두 모형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형 (f)와 모형 (g)는, 모형 (d)에 각각 3次 交互作用 項目{연령·성·주 수입원 형태}과 {성·지역·주 수입원 형태}을 넣어 본 것으로 모형 (d)와 비교해 보면, 모형 (e)와 모형 (d)를 비교한 결과와 비슷하게, 모형 (f)와 모형 (g)에 포함된 3次 交互作用은 統計적으로 有意하지 않다. 따라서 모형 (f)와 모형 (g) 역시, 모형 (d)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모형 (d)는 그보다 축소된 모형 (a), 모형 (b), 모형 (c)를 점차적으로 統計的 有意성을 가지고 발전시킨 것이며, 그보다 복잡한 모형에 비하여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어진 자료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최상의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모형 (d)를 분석해 보면, 주 수입원 형태 Odds(의존형의 수/자립형의 수)가 前期老人에 비하여 後期老人이 4.90배,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4.01배 높으며, 시부노인에 비하여 군부노인이 0.48배로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드러난 것이다. 아래의 <表 4>는 모형 (d)에 근거한 연령·성·지역 그리고 주 수입원 형태의 4次元 分割表인데, 제4행과 제5행은 모형 (d)에 의해 얻어진 기대치로 각각 자립형 노인의 수와 의존형 노인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6행은 주 수입원 형태 Odds, 그리고 제7행은 성과 지역 두 변인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年齡 變因의 영향력을, 연령 Odds Ratio(후기노인의 주 수입원 형태 Odds/전기노인의 주 수입원 형태 Odds)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의 연령 Odds

Ratio(4.90)는 前期老人에 비하여 後期老人의 주 수입원 형태 Odds가 4.90배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8행은 연령과 지역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성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성 Odds Ratio(여자노인 주 수입원 형태 Odds/남자노인 주 수입원 형태 Odds)이다. 성 Odds Ratio 값이 4.01로 나타나서,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주 수입원 형태 Odds가 4.01배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9행은 年齡과 性 變因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地域 變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역 Odds Ratio(군부노인 주 수입원 형태 Odds/시부노인의 주 수입원 형태 Odds)이다. 지역 Odds Ratio는 0.48로, 주 수입원이 自立型에 대한 依存型 노인수는 시부노인에 비하여 군부노인이 0.48배로서, 군부노인이 시부노인에 비하여 52% 낮게 나타났다.

<表 4> ‘主收入源 形態’ 模型(d)에 根據한 期待值, Odds 및 Odds Ratios

연령	성	지역	주수입원 형태		Odds ¹⁾	OR ²⁾ (연령)	OR ³⁾ (성)	OR ⁴⁾ (지역)
			자립형	의존형				
전기	남	시부	220.17	76.71	0.35	1.00	1.00	1.00
전기	남	군부	196.26	32.71	0.17	1.00	1.00	0.48
전기	여	시부	175.12	244.64	1.40	1.00	4.01	1.00
전기	여	군부	182.59	122.02	0.67	1.00	4.01	0.48
후기	남	시부	57.70	98.52	1.71	4.90	1.00	1.00
후기	남	군부	71.09	58.06	0.82	4.90	1.00	0.48
후기	여	시부	37.33	255.56	6.85	4.90	4.01	1.00
후기	여	군부	51.27	167.90	3.27	4.90	4.01	0.48

註: 1) Odds=제5행(의존형)의 값/제4행(자립형)의 값

2) OR(연령): 연령에 따른 Odds Ratio(성·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3) OR(성): 성에 따른 Odds Ratio(연령·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여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남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4) OR(지역): 지역에 따른 Odds Ratio(연령·성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군부지역 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시부지역 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2) 主觀的 經濟評價

<表 5>는 主觀的 經濟評價를 위해 시행된 對數線形模型들과 통계검정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表 5>에 의하면, 모형 (b)와 모형 (a)의 비교에서 지역과 主觀的 經濟評價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형 (c)와 모형 (d)의 비교에서, 지역과 주관적 경제평가간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성과 주관적 경제평가간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d)와 모형 (c)의 비교에서, 主觀的 經濟評價가 지역과 성뿐만 아니라 연령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 (d)와 3次 交互作用을 하나씩 넣어 본 모형 (e), 모형 (f), 모형 (g)와의 사이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가 없으므로, 主觀的 經濟評價와 연관하여 성·지역·연령 중 變因이 갖는 3次 交互作用은 없음을 알 수 있다.

<表 5> '主觀的 經濟的 評價'에 대한 對數線形模型과 統計檢定

모형	내용	자유도	G ²	모형간의 차이	자유도	G ²
(a)	{연령*성*지역}+(주관적 평가)	7	25.28*	-	-	-
(b)	모형(a)+{지역*주관적 평가}	6	10.28	(b)와 (a)	1	15.00*
(c)	모형(b)+{성*주관적 평가}	5	6.09	(c)와 (b)	1	4.19*
(d)	모형(c)+{연령*주관적 평가}	4	1.97	(d)와 (c)	1	4.12*
(e)	모형(d)+{연령*성*주관적 평가}	3	1.97	(e)와 (d)	1	0.00
(f)	모형(d)+{연령*지역*주관적 평가}	3	1.96	(f)와 (d)	1	0.01
(g)	모형(d)+{성*지역*주관적 평가}	3	1.24	(g)와 (d)	1	0.73

註: *: p<0.05

모형 (d)는 그보다 축소된 모형 (a), 모형 (b), 그리고 모형 (c)를 統計的인 有意性을 가지고 발전시켰고 그보다 더 복잡한 모형 (d), 모형 (e) 및 모형 (f) 와 비교해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모형 (d)는 자체의 우도비 검정통계량(G²=1.97, 자유도=4)으로 인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主觀的 經濟評價를 위한 최상의 모형은 모형 (d)로서 연령·성·지역이 독립적으로 主觀的 經濟評價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형 (d)에 의한 연령·성·지역과 주관적 경제평가 와의 相關성은 <表 6>에 근거해 살펴볼 수 있다.

<表 6> '主觀的 經濟評價' 模型 (d)에 根據한 期待值, Odds 및 Odds Ratios

연령	성	지역	주관적 경제평가		Odds ¹⁾	OR ²⁾ (연령)	OR ³⁾ (성)	OR ⁴⁾ (지역)
			어렵다	어렵지 않다				
전기	남	시부	225.23	72.17	0.32	1.00	1.00	1.00
전기	남	군부	190.02	39.00	0.21	1.00	1.00	0.64
전기	여	시부	335.89	84.38	0.25	1.00	0.78	1.00
전기	여	군부	262.37	42.22	0.16	1.00	0.78	0.64
후기	남	시부	112.50	45.29	0.40	1.26	1.00	1.00
후기	남	군부	103.72	26.75	0.26	1.26	1.00	0.64
후기	여	시부	222.63	70.26	0.32	1.26	0.78	1.00
후기	여	군부	184.02	37.21	0.20	1.26	0.78	0.64

註: 1) Odds=제5행(어렵지 않다)의 값/제4행(어렵다)의 값

2) OR(연령): 연령에 따른 Odds Ratio(성·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3) OR(성): 성에 따른 Odds Ratio(연령·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여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남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4) OR(지역): 지역에 따른 Odds Ratio(연령·성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군부지역 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시부지역 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이 <表 6>에 의하면 주관적 경제평가 Odds (자신들의 경제적 상태가 '어렵지 않다'는 노인수 / '어렵다'는 노인수)는 전기노인에 비하여 후기노인이 1.26배(年齡 Odds Ratio) 높고,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0.78배(性 Odds Ratio)로서 22%가 낮으며, 또한 시부노인에 비하여 군부노인이 0.64배(지역 Odds Ratio)로서 36% 낮음

을 알 수 있다.

나. 身體的 扶養實態

<表 7>은 ADL에 1가지라도 제한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몇 개의 對數線形模型들을 적용시켜 본 결과이다.

<表 7> '身體的 扶養者 有無' 對數線形模型과 統計檢定

모형	내용	자유도	G ²	모형간의 차이	자유도	G ²
(a)	{연령*성*지역}+{신체적 부양자 유무}	7	23.74*	-	-	-
(b)	모형(a)+{연령*신체적 부양자 유무}	6	5.75	(b)와 (a)	1	17.99*
(c)	모형(b)+{성*신체적 부양자 유무}	5	5.75	(c)와 (b)	1	0.00
(d)	모형(c)+{지역*신체적 부양자 유무}	5	4.71	(c)와 (d)	1	1.04

註: *: p<0.05

모형 (b)와 (a)의 비교에서, 年齡과 身體 扶養者 有無간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c)와 모형 (d)가, 모형 (b)와의 비교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모형 (c)와 모형 (d)에 포함된 각 항목들, 즉 性和 身體 扶養者 有無의 關聯性 그리고 지역과 신체 부양자 유무의 관련성은 없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형 (b)자체의 우도비 검정통계량으로 보아 모형 (b)가 자료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체 부양자 유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최상의 모형으로, 年齡과 身體 扶養者 有無간의 關聯性만을 인정하는 모형 (b)를 최상의 것으로 선택하였다. 모형(b)에 따른 결과는 <表 8>에 제시되어 있다.

<表 8> '身體的의 扶養' 模型 (b)에 根據한 期待值, Odds 및 Odds Ratios

연령	성	지역	신체적 부양자 유무		Odds ¹⁾	OR ²⁾ (연령)
			없음	있음		
전기	남	시부	19.64	14.04	0.71	1.00
전기	남	군부	20.54	14.68	0.71	1.00
전기	여	시부	38.76	27.71	0.71	1.00
전기	여	군부	41.54	29.7	0.71	1.00
후기	남	시부	16.93	25.73	1.52	2.13
후기	남	군부	20.68	31.42	1.52	2.13
후기	여	시부	57.51	87.39	1.52	2.13
후기	여	군부	40.49	61.52	1.52	2.13

註: 1) Odds=제5행(부양자 있음)의 값/제4행(부양자 없음)의 값
 2) OR(연령): 연령에 따른 Odds Ratio(성·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表 8>에 의하면 신체 부양자 유무 Odds(신체적 부양자가 있는 노인수/없는 노인수)가 전기노인에 비하여 후기노인에서 2.13배(연령 Odds Ratio) 높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부양을 받는 노인에 있어서 그 만족여부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對數線形模型이 表 9에 나타나 있다. 모형 (b)와 모형 (a)의 비교에서는 연령이 신체부양 만족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항목이 統計的으로 有意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 (c)와 모형 (b)의 비교에서는 성과 身體扶養 滿足與否가 관련이 있다는 항목 또한 統計的으로

有意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형 (d)와 모형 (c)의 비교에서는 지역과 신체부양 만족여부간의 관련성은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형 (c) 자체의 우도비 검정통계량 ($G^2=0.95$, 자유도=5)에 의해 모형(c)는 자료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身體扶養 滿足與否를 위한 최상의 모형으로 연령과 신체부양 만족여부간의, 그리고 성과 신체부양 만족여부간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모형 (c)를 최상의 모형으로 선택했다.

<表 9> '身體的 扶養 滿足與否'에 대한 對數線形模型과 統計檢定

모형	내용	자유도	G ²	모형간의 차이	자유도	G ²
(a)	{연령*성*지역}+(신체적 부양 만족)	7	16.47*	-	-	-
(b)	모형(a)+{연령*신체적 부양 만족}	6	10.55	(b)와 (a)	1	5.92*
(c)	모형(b)+{성*신체적 부양 만족}	5	0.95	(c)와 (b)	1	9.59*
(d)	모형(c)+{지역*신체적 부양 만족}	4	0.82	(d)와 (c)	1	0.14

註: *: p<0.05

<表 10> '身體的 扶養 滿足與否' 模型 (C)에 根據한 期待值, Odds 및 Odds Ratios

연령	성	지역	신체적 부양 만족여부		Odds ¹⁾	OR ²⁾ (연령)	OR ³⁾ (성)
			부족함	부족하지 않음			
전기	남	시부	1.45	11.55	7.96	1.00	1.00
전기	남	군부	1.90	15.12	7.96	1.00	1.00
전기	여	시부	10.08	22.08	2.19	1.00	0.28
전기	여	군부	7.33	16.06	2.19	1.00	0.28
후기	남	시부	1.27	25.54	20.17	2.53	1.00
후기	남	군부	1.33	26.74	20.17	2.53	1.00
후기	여	시부	13.55	75.20	5.55	2.53	0.28
후기	여	군부	9.53	52.89	5.55	2.53	0.28

註: 1) Odds=제5행(부족하지 않음)의 값/제4행(부족함)의 값

2) OR(연령): 연령에 따른 Odds Ratio(성·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3) OR(성): 성에 따른 Odds Ratio(연령·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여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남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모형 (c)에 의한 결과들은 表 10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표에 의하면 身體扶養 滿足與否 Odds(신체부양이 '부족하지 않다'는 노인수/부족하다'는 노인수)가 前期老人에 비하여 後期老人이 2.53배(연령 Odds Ratio) 높으나,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0.28배(성 Odds Ratio)로, 72% 낮다.

다. 情緒的 扶養實態

<表 11>은 情緒的 扶養者 有無를 설명하기 위한 對數線形模型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모형 (b)와 (a)의 비교에서 연령과 정서 부양자 유무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1> '情緒的 扶養者 有無'에 대한 對數線形模型과 統計檢定

모형	내용	자유도	G ²	모형간의 차이	자유도	G ²
(a)	{연령*성*지역}+{정서적 부양자 유무}	7	35.00*	-	-	-
(b)	모형(a)+{연령*정서적 부양자 유무}	6	17.45*	(b)와 (a)	1	17.55*
(c)	모형(b)+{성*정서적 부양자 유무}	5	8.52	(c)와 (b)	1	8.93*
(d)	모형(c)+{지역*정서적 부양자 유무}	4	3.04	(d)와 (c)	1	15.48*
(e)	모형(d)+{연령*성*정서적 부양자 유무}	3	2.19	(e)와 (d)	1	0.85
(f)	모형(d)+{연령*지역*정서적 부양자 유무}	3	2.69	(f)와 (d)	1	0.35
(g)	모형(d)+{성*지역*정서적 부양자 유무}	3	2.65	(g)와 (d)	1	0.39

註: *: p<0.05

<表 12> '情緒的 扶養 模型'(d)에 根據한 期待値와 Odds 및 Odds Ratios

연령	성	지역	정서적 부양자		Odds ¹⁾	OR ²⁾ (연령)	OR ³⁾ (성)	OR ⁴⁾ (지역)
			없음	있음				
전기	남	시부	45.64	245.11	5.37	1.00	1.00	1.00
전기	남	군부	43.00	179.20	4.17	1.00	1.00	0.78
전기	여	시부	84.59	323.80	3.83	1.00	0.71	1.00
전기	여	군부	75.44	224.09	2.97	1.00	0.71	0.78
후기	남	시부	32.83	113.48	3.46	0.64	1.00	1.00
후기	남	군부	31.54	84.62	2.68	0.64	1.00	0.78
후기	여	시부	77.35	190.56	2.46	0.64	0.71	1.00
후기	여	군부	66.78	127.68	1.91	0.64	0.71	0.78

- 註: 1) 제5행(부양자 있음)의 값/제4행(부양자 없음)의 값
 2) OR(연령): 연령에 따른 Odds Ratio(성·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전기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3) OR(성): 성에 따른 Odds Ratio(연령·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여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남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4) OR(지역): 지역에 따른 Odds Ratio(연령·성이 같은 층의 노인 중)
 $\frac{\text{군부지역 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text{시부지역 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모형 (c)와 모형 (b)의 비교에서는 性과 情緒的 扶養者 有無의 關聯性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그리고 모형 (d)와 모형 (c)의 비교에서는 지역과 정서 부양자 유무의 관련성이 유의함을 볼 수 있다. 모형 (d)와 3次 交互作用 항목을 담고 있는 모형 (e), 모형 (f) 그리고 모형 (g)와의 비교에서, 이러한 3次 交互作用 항목이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형 (d) 자체의 우도비 검정통계량($G^2=3.04$, 자유도=4)으로 모형 (d)는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명되었다.

<表 12>는 情緒的 扶養者 有無는 연령·성 및 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모형 (d)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表 12>에 의하면, 情緒的 扶養者 有無 Odds(정서적 부양자가 있는 노인수/없는 노인수)는 前期老人에 後期老人이 0.64배(연령 Odds Ratio)로 36% 낮고,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의 0.71배(성 Odds Ratio)로 29% 낮으며, 시부노인이 군부노인의 0.78배(지역 Odds Ratio)로 22% 낮다.

<表 13> '情緒的 扶養 滿足與否'에 대한 對數線形模型과 統計檢定

모형	내용	자유도	G ²	모형간의 차이	자유도	G ²
(a)	{연령*성*지역}+{정서적 부양 만족}	7	11.65*	-	-	-
(b)	모형(a)+{성*정서적 부양 만족}	6	11.10*	(b)와 (a)	1	4.55*
(c)	모형(b)+{연령*정서적 부양 만족}	5	10.85	(c)와 (b)	1	0.25
(d)	모형(c)+{지역*정서적 부양 만족}	5	10.84	(d)와 (b)	1	0.26
(e)	모형(d)+{연령*성*정서적 부양 만족}	5	3.77	(e)와 (b)	1	7.33

註: *: p<0.05

情緒的 扶養 滿足與否를 위해 사용된 對數線形模型들은 <表 13>에 나와 있다. 모형 (b)와 모형 (a)의 비교에서 性과 情緒扶養 滿足與否가 統計的으로 有意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c)와 모형 (b)의 비교에서 그리고 모형 (d)와 모형 (b)의 비교에서 연령이나 지역은 情緒扶養 滿足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 (b) 자체의 우도비 검정통계량($G^2=11.10$, 자유도=6)에 의해, 모형 (b)가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모형을 찾기 위해, 情緒扶養 滿足與否는 성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련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킨 모형 (e)를 사용해 보았다. 이 모형 (e)와 모형 (b)를 비교해 보면, 性과 情緒扶養

滿足程度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을 인정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형 (e) 자체의 우도비 검정통계량($G^2=3.77$, 자유도=5)으로 인해 모형 (e)가 자료에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이 모형 (e)에 의한 결과는 <表 14>에 나타나 있는데, 情緒扶養 滿足與否 Odds(정서부양이 '부족하지 않다'는 노인수/'부족하다'는 노인수)가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낮으며 그 정도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情緒扶養 滿足與否 Odds가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前期老人인 경우 0.96배(전기노인에 있어서 성 Odds Ratio)로 단지 4% 낮고, 後期老人인 경우는 0.36배(후기노인에 있어서 성 Odds Ratio)로 64%나 낮음을 보여준다.

<表 14> '情 緒 的 扶 養 滿 足 與 否' 模 型 (e)에 根 據 한 期 待 值 와 Odds 및 Odds Ratios

연령	성	지역	정서적 부양 만족여부		Odds ¹⁾	OR ²⁾ (성)
			부족함	부족하지 않음		
전기	남	시부	23.23	225.98	9.73	1.00
전기	남	군부	16.70	162.44	9.73	1.00
전기	여	시부	31.25	291.17	9.32	0.96
전기	여	군부	21.39	199.32	9.32	0.96
후기	남	시부	6.32	100.28	15.86	1.00
후기	남	군부	5.19	82.26	15.86	1.00
후기	여	시부	29.00	165.69	5.71	0.36
후기	여	군부	18.91	108.05	5.71	0.36

註: 1) Odds=제5행(부족하지 않음)의 값/제4행(부족함)의 값
 2) OR(성): 성에 따른 Odds(연령·지역이 같은 층의 노인 중)
 여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남자노인에 있어서 제6행의 Odds 값

IV. 要 約 및 結 論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부양실태에서 가장 심각한 측면은 경제적 부양으로 그들의 50% 이상이 자녀에게 주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비율 또한 20.3%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신체적 부양을 제공받는 노인들이

53.3%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주의를 끌만하다(表 2 참조). 취약계층 노인과 비취약계층 노인의 비교관점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취약계층 노인이 모든 부양실태면에서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表 15>는 앞서 보았던 對數線形模型 分析의 결과를 요약해 본 것이다.

<表 15> 分析結果의 要約

(단위: 배)

	경제적 부양실태		신체적 부양실태		정서적 부양실태	
	주수입원 (의존형)	주관적 경제평가 (어렵지않다)	부양자 유무 (있다)	만족여부 (부족하지않다)	부양자 유무 (있다)	만족여부 (부족하지 않다)
후기	4.90	1.26	2.13	2.53	0.64	-
여자	4.01	0.78	-	0.28	0.71	0.96(전기노인중) 0.36(후기노인중)
군부	0.48	0.64	-	-	0.78	-

이 表에 의하면, 經濟的 扶養實態에서 後期老人은 前期老人에 비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身體的·精神的 機能의 악화와 더불어 경제 활동도 중단되어 자녀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반

영하고 있다. 後期老人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평가가 前期老人에 비하여 더 높은 것은, 후기노인들의 경우에는 支出한 내용이 작아진 데다가 생활주기상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반면

에 전기노인들의 경우에는 退職 등을 전후해 그 수입원이 없어진 데다가, 자녀들의 결혼비용과 같은 큰 지출을 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자노인들의 子女依存 경향이 더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고 여자노인이 經濟活動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就業, 職種, 賃金 등에서 열악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 여건 하에서, 결국 자녀들에게 經濟的 依存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은 것은, 자녀로부터 받는 經濟的 扶養의 정도나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시부모인에 비하여 尙부모인은 주 수입원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낮으며, 또한 자신의 經濟狀況을 '어렵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도 낮다. 이것은 尙부모인들이 대부분 농사활동에 自發的이라기보다는 生計維持를 위한 필요에 의해 참여하고 있으나, 그러한 결과로 얻어지는 수입은 넉넉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身體的 扶養實態에서 後期老人일수록 부양자

가 있으며, 그 부양자에 만족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부양자 유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부양자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情緒的 扶養實態에서는 후기노인, 여자노인 그리고 尙부모인일수록 情緒的 扶養者가 없는 비율이 높다. 한편 정서적 부양자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성별에 의한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여자노인들의 연령층에 따라 다른데, 전기 여자노인은 전기 남자노인에 비하여 情緒的 扶養者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조금 낮으나, 후기 여자노인은 후기 남자노인에 비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계층 노인과 비취약계층 노인에게서 발견된 부양실태의 차이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양한 노인계층의 성격 및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내에서 수립될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⁴⁾

4)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하여는 다음의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이가옥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參 考 文 獻

- 공세권·김은주, 「최근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분석」, 『인구보건논집』, 제8권 제1호, 1988, pp.3~33.
- 구자순, 「한국 농촌의 젊은층 인구전출과 노인」, 『한국노년학』, 제11권 제2호, 1991, pp.235~250.
- 김응석·이상현·김승권·유성은, 『농촌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부양 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남궁평·홍중선, 『범주형 자료의 통계분석』, 서울자유아카데미, 1991.
- 문현상·변용찬, 「한국의 도시화와 가족구조 변화」, 『한국인구학회지』, 제15권 제1호, 1992, pp.62~72.
- 박인덕·박정은·이영세·김인순, 『여자노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1989.
- 윤종주, 「우리나라 노인부양구조의 변화」, 『보건사회논집』, 제11권 제1호, 1991, pp.58~81
- 이가옥·권선진·권중돈·이원숙,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중돈, 『노인생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Fienberg, Stephen E., *The Analysis of Cross-Classified Categorical Data*, Massachusetts: MIT, 1980.
- Knoké, David and Peter J. Burke., *Log-Linear Models*. Sage Series No. 20,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0.

<Summary>

Living Status of Disprivileged Elderly Persons in Korea

K.O. Rhee · M.K. Suh · C.S. Kim

Using the 1994 Survey on the Living Status of Korean Elderl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r those aged 60 and over sampled from the whole country, the paper explores the living status of disprivileged groups among the aged. Three aspects of living status, economic condition, health status and emotional status, are compared by age, sex and residence. A series of loglinear models i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1) the likelihood to be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ir children is higher for older aged (aged 70 and over) and females but lower for rural residents; (2) the likelihood that

the elderly do not feel economic difficulty is higher for older aged, but lower for females and rural residents; (3) the likelihood to have health supporter is higher for the older aged; (4) the older aged a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health support, but females are less likely to be satisfied; (5) the likelihood to have emotional supporter is lower for older aged, females and rural residents; and (6) females are less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emotional support and the extent of this likelihood depends on the ages of females. It is suggested to select the target population for more effectiv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persons.